
일상 회복 현황판 : 최근 동향 중 주목해야할 점

서울대학교 아시아지역정보센터

04월 18일

4월 18일 현재 신규확진자 수, 위중증자 수, 사망자 수는 빠르게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음. 중환자실 점유율 및 일반병동 점유율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2급 감염병으로 코로나의 위험을 격하시키는 경우에 대비해 의료시스템 및 각종 방역 대책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임

현재까지는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변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변이의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은 있음. 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완화하더라도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예방을 위해 확진자 관리, 역학조사 시스템의 재정비, 의료시설 운영시 발생했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등의 노력을 확진자 감소 시점에 적극 수행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그동안 표면화 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등장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04월 12일

4월 12일 현재 신규확진자 수, 위중증자 수, 사망자 수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음. 비수도권의 중환자실 점유율이 높으나 점차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환자실 점유율도 감소하고 있음. 고령층의 확진도 적지 않지만 최소한 위중증자의 폭증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대부분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큰 혼란이 없는 것도 다행임

다만 새로운 변이의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완화하더라도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음.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이동을 줄이고 있는 경향을 보여왔으나 최근 빠르게 회복을 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음. 이는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인식이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의미.

04월 05일

4월 5일 현재 신규확진자 수, 위중증자 수, 사망자 수가 모두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위중증자가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고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여전히 수도권 외의 중환자실 점유율이 높고 고령층의 확진도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소한 위중증자의 폭증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일반병실과 중환자실 관리 자체는 잘 되고 있으나 코로나 환자나 비코로나 환자 중 응급환자의 의료시설 접근에 제약이 상당히 커서 응급실 이용 및 긴급환자의 입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

새로운 변이의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완화하더라도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음.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이동을 줄이고 있는 경향을 보여왔으나 최근 조금씩 회복을 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음. 이는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인식이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의미.

04월 02일

4월 2일 현재 [위중증자 수](#)는 1,165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현재 코로나 병상 지침에 따르면 증상 발현 후 20일 이후에는 중환자실에서 퇴원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중환자의 폭증은 일어나지 않고 있음. 중환자실의 가동률이 62.8%까지 떨어졌음. 고령층의 확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중증자가 급격히 감소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위중증자의 폭증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는 지속되고 있음. 다만 사망자 수가 3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7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80%이상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일반병실과 중환자실 관리 자체는 잘 되고 있으나 코로나 환자나 비코로나 환자 중 응급환자의 의료시설 접근에 제약이 상당히 커서 응급실 이용 및 긴급환자의 입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

추가사망 통계를 이용하여 코로나로 인한 간접 사망자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고령층을 제외하고 추가사망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통계청의 추가사망 통계는 고령층 인구의 자연스러운 증가에 따른 사망증가 요인을 통제하지 않고 있고, 겨울 기간동안의

사망자수는 날씨에 영향을 받아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추가사망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음

추가사망의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한국의 코로나 사망자 판단 기준은 WHO 기준에 따라 판단되고 있어 정부가 사망자를 과소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비판임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이동을 줄이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와 함께 하는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음

03월 28일

3월 28일 현재 위중증자 수는 1,216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현재 코로나 병상 지침에 따르면 증상 발현 후 20일 이후에는 중환자실에서 퇴원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중환자의 폭증은 일어나지 않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의 가동률이 6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2주전의 확진자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중증자 수는 1~2주는 급격히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음. 다만 사망자 수가 200~3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7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80%이상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

세계 최고 수준의 확진자 발생으로 방역실패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차분히 대응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

추가사망 통계를 이용하여 코로나로 인한 간접 사망자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고령층을 제외하고 추가사망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통계청의 추가사망 통계는 고령층 인구의 자연스러운 증가에 따른 사망증가 요인을 통제하지 않고 있고, 겨울 기간동안의 사망자수는 날씨에 영향을 받아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추가사망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음

추가사망의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한국의 코로나 사망자 판단 기준은 WHO 기준에 따라 판단되고 있어 정부가 사망자를 과소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비판임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이동을 줄이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03월 21일

3월 22일 현재 위중증자 수는 1033명 증가속도는 느려진 상황. 사망자 수가 327명 수준으로 70대 이상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행히 신규환자 증가속도가 떨어지고 있음. 전체적으로 확진자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금주 목요일까지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세계 최고 수준의 확진자 발생으로 방역실패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차분히 대응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 3월 21일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7%로 매우 높음. 신규환자 증가 자체는 통제가능한 수준이지만 중환자 증가가 사망자 증가로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1달 치명률은 0.06%까지 떨어져 매우 낮은 상황임. 60대 미만의 치명률은 이보다 훨씬 낮음.

추가사망 통계를 이용하여 코로나로 인한 간접 사망자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고령층을 제외하고 추가사망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통계청의 추가사망 통계는 고령층 인구의 자연스러운 증가에 따른 사망증가 요인을 통제한 것이 아니므로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도 존재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이동을 줄이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03월 15일

3월 15일 현재 위중증자 수는 1196명 증가속도는 느려진 상황. 사망자 수가 293명 수준으로 70대 이상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행히 신규환자 증가속도가 떨어지고 있음.

세계 최고 수준의 확진자 발생으로 방역실패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차분히 대응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 3월 15일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5%로 매우 높음. 신규환자 증가 자체는 통제가능한 수준이지만 중환자 증가가 사망자 증가로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1달 치명률은 0.06%까지 떨어져 매우 낮은 상황임. 60대 미만의 치명률은 이보다 훨씬 낮음.

추가사망 통계를 이용하여 코로나로 인한 간접 사망자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고령층을 제외하고 추가사망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통계청의 추가사망 통계는 고령층 인구의 자연스러운 증가에 따른 사망증가 요인을 통제한 것이 아니므로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도 존재

03월 08일

3월 8일 현재 위중증자 수는 1007명선에 근접하여 빠르게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사망자 수가 189명 수준으로 70대 이상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령층의 감염자 수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70대 이상의 경우 핫라인을 설치하여 즉시 코로나 치료제 제동 및 밀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확진자 급증 현상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전체 확진자 중 60대 이상이 15%에 불과하지만, 사망자는 전체의 94%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 있음. 따라서 정부는 60세 이상의 확진, 중증화, 사망과정에 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고 특히 요양병원 집단 감염에 따른 고령층 사망 여부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세계 최고 수준의 확진자 발생으로 방역실패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차분히 대응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 3월8일 현재 일반병상 가동률도 45.7% 수준으로 안정적지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9.6%로 높음.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계속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또한 재택치료 인원이 110만명이 넘어가는 만큼 재택치료 관리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현재 1달 치명률은 0.06%까지 떨어져 매우 낮은 상황임. 60대 미만의 치명률은 이보다 훨씬 낮음.

추가사망 통계를 이용하여 코로나로 인한 간접 사망자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고령층을 제외하고 추가사망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통계청의 추가사망 통계는 고령층 인구의 자연스러운 증가에 따른 사망증가 요인을 통제한 것이 아니므로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도 존재

03월 02일

3월 2일 현재 위중증자 수는 762명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사망자 수가 96명 수준으로 확진자증가속도에 비해 사망자 증가속도가 훨씬 낮은 상황이다. 확진자 급증 현상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전체 확진자 중 60대 이상이 15%에 불과하지만, 사망자는 전체의 94%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60세 이상의 확진, 중증화, 사망과정에 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고 특히 요양병원 집단 감염에 따른 고령층 사망 여부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확진자 발생으로 방역실패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차분히 대응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 3월2일 현재 일반병상 가동률도 49.8%로 안정적이고

신규입원자 증가 못지 않게 퇴원환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50.1%임.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계속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현재 1달 치명률은 0.06%까지 떨어져 매우 낮은 상황임. 60대 미만의 치명률은 이보다 훨씬 낮음.

추가사망 통계를 이용하여 코로나로 인한 간접 사망자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고령층을 제외하고 추가사망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통계청의 추가사망 통계는 고령층 인구의 자연스러운 증가에 따른 사망증가 요인을 통제한 것이 아니므로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도 존재

02월 26일

2월 26일 현재 [위중증자 수](#)는 643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사망자 수가 112명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위중증자 증가는 깊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확진자 급증 현상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전체 확진자 중 60대 이상이 15%에 불과하지만, 사망자는 전체의 94%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60세 이상의 확진, 중증화, 사망과정에 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

세계 최고 수준의 확진자 발생으로 방역실패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차분히 대응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 2월26일 현재 일반병상 가동률도 50.2%로 안정적이고 신규입원자 증가 못지 않게 퇴원환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44%임. 확진자 증가에 따라 일반병상 가동률을 계속 높아질 것이지만 아직은 충분히 대응가능한 수준임.

현재 1달 치명률은 0.06%까지 떨어져 매우 낮은 상황임. 60대 미만의 치명률은 이보다 훨씬 낮음.

추가사망 통계를 이용하여 코로나로 인한 간접 사망자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고령층을 제외하고 추가사망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통계청의 추가사망 통계는 고령층 인구의 자연스러운 증가에 따른 사망증가 요인을 통제한 것이 아니므로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도 존재

02월 23일

2월 23일 현재 [위중증자 수](#)는 512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사망자 수가 99명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위중증자 증가는 깊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중증자와 사망자가 70대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증가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2021년 12월 8천명 신규확진자 발생시 의료시스템 붕괴를 이야기할 때와 달리 차분히 대응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 2월23일 현재 일반병상 가동률도 45.9%로 안정적이고 신규입원자 증가 못지 않게 퇴원환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36.9%로 증가하고 있음.

현재 1달 치명률은 0.08%까지 떨어져 매우 낮은 상황임.

추가사망 통계를 이용하여 코로나로 인한 간접 사망자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고령층을 제외하고 추가사망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통계청의 추가사망 통계는 고령층 인구의 자연스러운 증가에 따른 사망증가 요인을 통제한 것이 아니므로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도 존재

02월 16일

2월 16일 현재 [위중증자 수](#)는 313명으로 급속한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위중증자 증가는 아직 낮은 수준이고 신규 입원환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증환자 증가속도는 빠른편은 아님. 하지만 확진자 수의 증가추세를 보면 중증환자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사망자 추세도 주간 평균이 37명으로 안정적임.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의 집단 감염확산에 따른 사망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기저질환이 있는 60대 이상 확진자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은 소홀히해서는 안됨

하지만 2021년 12월 8천명 신규확진자 발생시 의료시스템 붕괴를 이야기할 때와 달리 차분히 대응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 2월4일 현재 일반병상 가동률도 41%로 안정적이고 신규입원자 증가 못지 않게 퇴원환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27%로 증가했으나 아직은 안정적임.

의심신고검사소의 양성률이 빠른속도로 증가하여 20%를 넘어서서 확산추세는 당분간 꾸준히 진정될 것으로 판단

현재 1달 치명률은 0.12%까지 떨어져 매우 낮은 상황임.

백신이 확산 예방을 위한 정책에서 중증화율을 낮추는 도구로 바뀐 이상 Zero 방역정책이나 강력한 백신패스 제도를 통한 고점 완화가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음.

폐렴환자가 매년 65만 이상이 발생하다가 2020년에는 25만명 정도 밖에 발생하지 않았음. 오미크론 변이가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과도한 대응은 오히려 의료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백신 후유증으로 45만명 이상이 후유증을 신고하였고 3차접종의 경우에는 중대후유증 신고는 1511건, 3차 접종자 중 사망자는 264명 정도임.

02월 11일

2월 11일 현재 위중증자 수는 271명으로 급속한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위중증자 증가는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확진자 수의 증가추세를 보면 중증환자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21년 12월 확진자가 1만명 미만인 상황에서 중증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과 달리 1주일 확진자 규모가 5만명을 넘었음에도 중증환자 증가율은 크지 않다는 것은 긍정적임. 사망자 추세도 안정적임.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의 집단 감염확산에 따른 사망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기저질환이 있는 60대 이상 확진자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은 소홀히 해서는 안됨

오미크론 변이 확산 후 2월 10일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5만명을 넘어섰고 증가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 하지만 2021년 12월 8천명 신규확진자 발생시 의료시스템 붕괴를 이야기할 때와 달리 차분히 대응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 2월4일 현재 일반병상 가동률도 43.4%로 안정적이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19.1%에 정도로 안정적임.

의심신고검사소의 양성률이 빠른속도로 증가하여 20%를 넘어서서 확산추세는 당분간 꾸준히 진정될 것으로 판단

현재 1달 치명률은 0.19%까지 떨어져 매우 낮은 상황임.

백신이 확산 예방을 위한 정책에서 중증화율을 낮추는 도구로 바뀐 이상 Zero 방역정책이나 강력한 백신패스 제도를 통한 고점 완화가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음.

폐렴환자가 매년 65만 이상이 발생하다가 2020년에는 25만명 정도 밖에 발생하지 않았음. 오미크론 변이가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과도한 대응은 오히려 의료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백신 후유증으로 44만명 이상이 후유증을 신고하였고 3차접종의 경우에는 후유증 신고율이 백만명 당 1400명, 3차 접종자 중 사망자는 백만명 접종자 중 9명 정도임.

02월 05일

2월 5일 현재 위중증자 수는 269명으로 급속한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위중증자 증가는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확진자 수의 증가추세를 보면 중증환자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21년 12월 확진자가 1만명 미만인 상황에서 중증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과 달리 1주일 확진자 규모가 22847명임에도 불구하고 중증환자 증가율은 크지 않다는 것은 긍정적임.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의 집단 감염확산이 커지면 중증환자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60대 이상 확진자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은 소홀히 해서는 안됨

오미크론 변이 확산 후 2월 5일 신규 확진자 수가 3만명을 넘어섰고 증가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 하지만 2021년 12월 8천명 신규확진자 발생시 의료시스템 붕괴를 이야기할 때와 달리 차분히 대응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 2월4일 현재 일반병상 가동률도 40,8%로 안정적이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16.1%에 정도임.

의심신고검사소의 양성률이 빠른속도로 증가하여 13%대에 근접하고 있어 확산속도는 더욱 빨라질 예정임

최근자료에서 오미크론 중증화율은 평균 0.36%인데 연령별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60세 미만의 경우 0%에 가깝지만 60대 0.4%, 80세 이상 5.2%로 위험 그룹의 위험도는 여전히 높음. 현재 1달 치명률은 0.44%까지 떨어진 상황임.

병상 확보의 여유는 좋은 수준임. 입원환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중증환자는 아직까지는 감소추세를 유지. 따라서, 핵심은 병상수 확보 못지 않게 효율적인 환자 분류, 재택 치료 확대, 의료인력 관리 등이 더 중요함.

백신이 확산 예방을 위한 정책에서 중증화율을 낮추는 도구로 바뀐 이상 Zero 방역정책이나 강력한 백신패스 제도를 통한 고점 완화가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음.

패렴환자가 매년 65만 이상이 발생하다가 2020년에는 25만명 정도 밖에 발생하지 않았음. 오미크론 변이가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과도한 대응은 오히려 의료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백신 후유증으로 44만명 이상이 후유증을 신고하였고 3차접종의 경우에는 후유증 신고율이 백만명 당 1400명, 3차 접종자 중 사망자는 백만명 접종자 중 9명 정도임. 참고로 미접종자 중 확진자율은 중증화율은 백만명당 2188명 정도임.

02월 02일

2월 2일 현재 위중증자 수는 278명으로 2월1일 272명에서 증가세로 돌아서기 시작하였음. 확진자 수의 증가추세를 보면 중증환자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21년 12월 확진자가 1만명 미만인 상황에서 중증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과 달리 1주일 중증환자 규모가 17만명 대임에도 불구하고 중증환자 증가율은 크지 않다는 것은 긍정적임.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의 집단 감염확산이 커지면 중증환자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60대 이상 확진자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중증환자 예측을 할 필요가 있음.

오미크론 변이 확산 후 2월 2일 신규 확진자 수가 2만명을 넘어섰고 증가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 하지만 2021년 12월 8천명 신규확진자 발생시 의료시스템 붕괴를 이야기할 때와 달리 차분히 대응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

의심신고검사소의 양성률이 빠른속도로 증가하여 13%대에 근접하고 있어 확산속도는 더욱 빨라질 예정임

최근자료에서 오미크론 중증화율은 평균 0.36%인데 연령별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60세 미만의 경우 0%에 가깝지만 60대 0.4%, 80세 이상 5.2%로 위험 그룹의 위험도는 여전히 높음. 현재 1달 치명률은 0.44%까지 떨어진 상황임.

병상 확보의 여유는 좋은 수준임. 입원환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중증환자는 아직까지는 감소추세를 유지. 따라서, 핵심은 병상수 확보 못지 않게 효율적인 환자 분류, 재택 치료 확대, 의료인력 관리 등이 더 중요함.

백신이 확산 예방을 위한 정책에서 중증화율을 낮추는 도구로 바뀐 이상 Zero 방역정책이나 강력한 백신패스 제도를 통한 고점 완화가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음.

패렴환자가 매년 65만 이상이 발생하다가 2020년에는 25만명 정도 밖에 발생하지 않았음. 오미크론 변이가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과도한 대응은 오히려 의료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백신 후유증으로 44만명 이상이 후유증을 신고하였고 3차접종의 경우에는 후유증 신고율이 백만명 당 1400명, 3차 접종자 중 사망자는 백만명 접종자 중 9명 정도임. 참고로 미접종자 중 확진자율은 중증화율은 백만명당 2188명 정도임

01월 28일

1월 28일 현재 위중증자 수는 300명대로 계속 감소하였으나 1월 14일 이후 확진자의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곧 위중증자의 증가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큼. 60대 이상의 3차 백신접종율이 85% 이상이 될 정도로 상당한 접종이 이루어졌음.

단, 오미크론 변이는 검출율이 1월 27일 기준 이미 80%으로 전환되었고 일일 확진자 수가 14,000명이 넘고 있어 확산은 더욱 심화될 예정임. 하지만 2021년 12월 8천명 신규확진자 발생시 의료시스템 붕괴를 이야기할 때와 달리 차분히 대응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

의심신고검사소의 양성률이 빠른속도로 증가하여 8%대에 근접하고 있어 확산은 더욱 심화될 예정임

최근자료에서 오미크론 중증화율은 평균 0.36%인데 연령별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60세 미만의 경우 0%에 가깝지만 60대 0.4%, 80세 이상 5.2%로 위험 그룹의 위험도는 여전히 높음. 치명률도 0.14% 정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병상 확보의 여유는 좋은 수준임. 입원환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중증환자는 아직까지는 감소추세를 유지. 따라서, 핵심은 병상수 확보 못지 않게 효율적인 환자 분류, 재택 치료 확대, 의료인력 관리 등이 더 중요함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강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 이는 Zero 방역정책이나 확산을 통한 고점 완화가 큰 의미가 없음을 시사. 또한 시민의 자발적 방역노력도 약화될 위험이 있음. 이런 점에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은 더욱 떨어짐.

전체 확진자 중 18세 미만 청소년층의 확진자의 비중이 크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가 작은 상황이고, 위중증자수는 여전히 매우 작음. 최근 18세 확진자 증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백신 중심의 방역대책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시 완벽히 코로나 통제를 하지 못하고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 오미크론 확진자가 유럽에서 폭증하고 있지만 사망자는 확진자 증가에 따라 증가하기는 하지만 폭증하는 것은 아님.

백신 후유증으로 43만명 이상이 후유증을 신고하였고 1,300명이 사망신고를 하였음. 1,2차 접종을 마친 후 3차 접종자의 사망신고도 꾸준히 보고 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며 특히 30대의 백신 후유증 신고가 많음.

01월 25일

1월 24일 현재 위중증자 수는 400명대로 감소하였으나 1월 14일 이후 확진자의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곧 위중증자의 증가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큼. 60대 이상의 3차 백신접종율이 85% 이상이 될 정도로 상당한 접종이 이루어졌음.

단, 오미크론 변이는 24일 현재 우세종으로 전환되었고 향후 오미크론에 의한 확산은 더욱 심화될 예정임. 정부는 어느 정도까지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현재 의료수준으로 통제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단순히 확진자 수의 증가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

의심신고검사소의 양성률이 빠른속도로 증가하여 7%대에 근접하고 있어 확산은 더욱 심화될 예정임

오미크론 중증화율은 0.14%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10만명 확진자가 발생하면 1,400명의 중증환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함

병상 확보의 여유는 좋은 수준임. 핵심은 병상 자체보다는 효율적인 환자 분류, 재택 치료 확대, 의료인력 관리 등이 더 중요함

반복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해결책이 되기 쉽지 않음을 의미. 또한 시민의 자발적 방역노력도 약화될 위험이 있음. 이미 60세 이상의 추가 백신접종률이 85%이상 높아진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강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음.

전체 확진자 중 18세 미만 청소년층의 확진자의 비중이 크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가 작은 상황이고, 위중증자수는 여전히 매우 작음. 최근 18세 확진자 증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백신 중심의 방역대책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시 완벽히 코로나 통제를 하지 못하고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 오미크론 확진자가 유럽에서 폭증하고 있지만 사망자는 확진자 증가에 따라 증가하기는 하지만 폭증하는 것은 아님

01월 24일

1월 24일 현재 위중증자 수는 400명대로 감소하였으나 1월 14일 이후 확진자의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곧 위중증자의 증가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큼. 60대 이상의 3차 백신접종률이 85% 이상이 될 정도로 상당한 접종이 이루어졌음.

단, 오미크론 변이는 24일 현재 우세종으로 전환되었고 향후 오미크론에 의한 확산은 더욱 심화될 예정임. 정부는 어느 정도까지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현재 의료수준으로 통제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단순히 확진자 수의 증가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

의심신고검사소의 양성률이 빠른속도로 증가하여 7%대에 근접하고 있어 확산은 더욱 심화될 예정임

병상 확보의 여유는 좋은 수준임. 핵심은 병상 자체보다는 효율적인 환자 분류, 재택 치료 확대, 의료인력 관리 등이 더 중요함

반복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해결책이 되기 쉽지 않음을 의미. 또한 시민의 자발적 방역노력도 약화될 위험이 있음. 이미 60세 이상의 추가 백신접종률이 85%이상 높아진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강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음.

전체 확진자 중 18세 미만 청소년층의 확진자의 비중이 크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가 작은 상황이고, 위중증자수는 여전히 매우 작음

백신 중심의 방역대책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시 완벽히 코로나 통제를 하지 못하고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 오미크론 확진자가 유럽에서 폭증하고 있지만 사망자는 확진자 증가에 따라 증가하기는 하지만 폭증하는 것은 아님

01월 17일

1월 17일 현재 위중증자 수는 500명대로 감소하였음. 60대 이상의 3차 백신접종율이 83% 이상이 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확진자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위중증자 수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단, 오미크론 변이가 1월 첫주에 확진자 중 12%에서 둘째 주에 22.8%로 증가하고 있음. 중대본은 21일쯤에 오미크론 변이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따라서 확진자 증가 추세로 반등이 시작되면 이후 위중증자의 증가도 시작될 가능성이 있음.

검사소의 양성률은 최근 다시 조금씩 반등하고 있음. 의심신고검사의 일주일 이동평균 값이 5%에 근접하고 있음

현재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사용률이 53%까지 떨어져 병상공급 문제는 해소된 상황. 다만 의료인력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위증자 의학적 치료 절차가 효율적으로 메뉴얼화 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 필요가 있음. 이제는 완벽한 방역 중심의 절차에서 일상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재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이동성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도 아님. 반복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해결책이 되기 쉽지 않음을 의미. 또한 시민의 자발적 방역노력도 약화될 위험이 있음. 이미 60세 이상의 백신접종률이 80%이상 높아진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강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음.

전체 확진자 중 18세 미만 청소년층의 확진자의 비중이 크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가 작은 상황이고, 위중증자수는 여전히 매우 작음

백신 중심의 방역대책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시 완벽히 코로나 통제를 하지 못하고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 오미크론 확진자가 유럽에서 폭증하고 있지만 사망자는 확진자 증가에 따라 증가하기는 하지만 폭증하는 것은 아님(예:영국: 확진자 8만, 사망자 287명)

01월 12일

1월 11일 현재 위중증자 수는 700명대로 감소하였음. 60대 이상의 3차 백신접종율이 80% 이상이 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확진자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위중증자 수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단, 오미크론 변이가 1월 첫주에 확진자 중 12%를 차지하고 있어서 향후 급증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확진자 증가가 예상됨.

검사소의 양성률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의심신고검사의 일주일 이동평균 값이 계속 하락하여 3.6% 이하로 감소하고 있음

현재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사용률이 53%까지 떨어져 병상공급 문제는 해소된 상황. 다만 의료인력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위증자 의학적 치료 절차가 효율적으로 메뉴얼화 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 필요가 있음. 이제는 완벽한 방역 중심의 절차에서 일상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재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이동성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도 아님. 반복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해결책이 되기 쉽지 않음을 의미. 또한 시민의 자발적 방역노력도 약화될 위험이 있음. 이미 60세 이상의 백신접종률이 80%이상 높아진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강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음.

18세 미만 청소년층의 확진자 수 증가 추세는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위중증자수는 여전히 매우 작음

백신 중심의 방역대책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시 완벽히 코로나 통제를 하지 못하고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 오미크론 확진자가 유럽에서 폭증하고 있지만 사망자가 폭증하는 것은 아님(예:영국: 확진자 14만, 사망자 97명)

22년 01월 05일

1월 5일 현재 위중증자 수는 900명대로 감소하였음. 60대 이상의 3차 백신접종율이 72%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확진자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위중증자 수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검사소의 양성률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2%대까지 떨어지고 있음

현재 병상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병상공급과 함께 의료인력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위증자 의학적 치료 절차가 효율적으로 메뉴얼화 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 필요가 있음. 초기 높은 위험도와 완벽한 방역 중심의 절차를 일상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재실행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이동성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도 아님. 반복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해결책이 되기 쉽지 않음을 의미. 또한 시민의 자발적 방역노력도 약화될 위험이 있음

일부에서는 2만명까지 신규확진자 예측을 하고 있으나 위드 코로나 정책 시작 이전에 1) 시민이 이동을 자발적으로 상당히 줄이고 있었고, 2) 3차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늘고 있었고, 3) 방학이 시작되고 있고, 4) 여전히 높은 수준의 개인 방역을 시민들이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근거가 취약함.

18세 미만 청소년층의 확진자 수 증가 추세는 꺾이기 시작하였고 위중증자수는 여전히 매우 작음

백신 중심의 방역대책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시 완벽히 코로나 통제를 하지 못하고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 오미크론 확진자가 유럽에서 폭증하고 있지만 중증환자나 사망자의 폭증이 동반되는 것은 아님

12월 29일

12월 28일 현재 위중증자 수는 1102명임. 확진자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60대 이상의 3차 백신접종율이 72%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위중증자 증가 추세는 꺾일 것으로 판단됨. 현재 병상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 병상공급과 함께 의료인력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위증자 의학적 치료 절차가 효율적으로 메뉴얼화 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 필요가 있음.

여전히 왜 60대 이상에서 위중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는지를 설명하지 못함. 60대 이상의 위중증자 증가는 계속되고 있고 50대의 위중증자 증가가 다시 현저해지고 있음. 80대 위중증자 감소도 주목할 만함. 다른 연령대의 위중증자 역시 미미한 수준임

일부에서는 2만명까지 신규확진자 예측을 하고 있으나 위드 코로나 정책 시작 이전에 1) 시민이 이동을 자발적으로 상당히 줄이고 있었고, 2) 3차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늘고 있었고, 3) 방학이 시작되고 있고, 4) 여전히 높은 수준의 개인 방역을 시민들이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근거가 취약함.

18세 미만 청소년층의 확진자 수 증가 추세는 꺾이기 시작하였고 위중증자수는 여전히 매우 작음

영국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급격하게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음. 주목할 만한 것은 13만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병상 환자는 800명대에 불과하다는 것임.

12월 26일

12월 26일 현재 위중증자 수는 1081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다시 시작되었고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사용률은 80% 아래로 떨어졌음. 이것은 위중증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병상 공급이 늘었기 때문임. 병상공급과 함께 의료인력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위중증자 의학적 치료 절차가 효율적으로 메뉴얼화 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 필요가 있음. 또한 왜 특정 연령대의 위중증자가 증가하는지, 왜 병상이 부족한지 임.

여전히 왜 60대 이상에서 위중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는지를 설명하지 못함. 60대 이상의 위중증자 증가는 계속되고 있고 50대의 위중증자 증가가 다시 현저해지고 있음. 80대 위중증자 감소도 주목할 만함. 다른 연령대의 위중증자 역시 미미한 수준임

일부에서는 2만명까지 신규확진자 예측을 하고 있으나 워드 코로나 정책 시작 이전에 1) 시민이 이동을 자발적으로 상당히 줄이고 있었고, 2) 3차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늘고 있었고, 3) 방학이 시작되고 있고, 4) 여전히 높은 수준의 개인 방역을 시민들이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근거가 취약함. 최근 신규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연휴 기간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8세 미만 청소년층의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반면 위중증자수는 여전히 매우 작음

영국의 경우 급격하게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음.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관련 있음. 반면 아직까지는 신규 사망자는 여전히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12월 19일

12월 18일 현재 위중증자 수는 1016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다시 시작되었고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사용률도 여전히 81%가 넘어 병상부족이 심한 상황. 문제의 핵심은 신규확진자가 아니라 왜 특정 연령대의 위중증자가 증가하는지, 왜 병상이 부족한지 임.

여전히 왜 60대 이상에서 위중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는지를 설명하지 못함. 60대 이상의 위중증자 증가는 계속되고 있지만 50대의 위중증자 증가가 주춤하고 있고, 다른 연령대의 위중증자 역시 미미한 수준임

일부에서는 2만명까지 신규확진자 예측을 하고 있으나 워드 코로나 정책 시작 이전에 1) 시민이 이동을 자발적으로 상당히 줄이고 있었고, 2) 3차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늘고 있었고, 3) 방학이 시작되고 있고, 4) 여전히 높은 수준의 개인 방역을 시민들이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근거가 취약함.

의심신고검사자 중 확진률이 6% 이상이 되는 반면 검사건수가 훨씬 많은 임시선별검사소의 확진률이 1%대에 불과하다. 의료자원의 부족이 심화되면 의심신고검사자 중심의 검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18세 미만 청소년층의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반면 위중증자수는 여전히 매우 작음

영국의 경우 급격하게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음.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관련 있음. 반면 아직까지는 신규 사망자는 여전히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12월 08일

12월 8일 현재 위중증자 수는 840명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위중증자 가용병상이 부족하다. 충청, 제주 등지에서도 사용가능한 중환자 병상수가 한자리 숫자에 불과하다. 의료자원 부족에 대비하여 코로나 이외의 질병으로 인한 긴급 중환자 보호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60대 이상 위중증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고, 50대 위중증자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타 연령대에서는 위중증자 증가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의심신고검사자 중 확진률이 6% 이상이 되는 반면 검사건수가 훨씬 많은 임시선별검사소의 확진률이 1%대에 불과하다. 의료자원의 부족이 심화되면 의심신고검사자 중심의 검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18세 미만 청소년층의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반면 위중증자수는 매우 작다.

신규 확진자 중 완전접종자가 70%를 넘어서면서 백신접종을 일찍 완료한 고령층에 대한 3차 접종을 서두를 필요성이 대두된다. 고위험군인 요양병원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11월 4주차와 12월 1주차에 각각 602명 및 802명 발생하였다. 그러나 60세 이상의 소규모 감염도 12월 1주에 5,278명에 달하는 등 소규모감염도 증가추세이다.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확산세가 크더라도 실질적인 위험성은 판단하기 어렵다.

12월 06일

위중증자 수가 727명에 달함(12.6일 현재). 수도권의 위중증자 치료를 위한 가용병상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 또한 강원, 인천, 충청, 제주 등지에서도 가용 중환자치료 병상수가 한자리 숫자에 불과한 상황. 코로나 이외의 타 질병의 긴급환자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현재 60대 이상 위중증자와 사망자수가 급증하고 있고, 50대의 위중증자 증가가 빨라지고 있음. 타 연령대는 아직까지는 위중증자가 적은 상황.

최근 위중증자 확산을 위드코로나 정책의 실패로 단정해서는 안됨. 비고령층 이동 증가를 코로나 확산의 직접 원인으로 해석하는데는 신중해야 함.

의심신고검사자 중 확진률이 6% 이상이 되는 반면 검사건수가 훨씬 많은 임시선별검사소의 확진률이 1%대에 머물러 있으므로 의료자원의 부족이 심화되면 의심신고검사자 중심의 검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18세 미만 청소년층의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반면 위중증자수는 매우 작은 수준임.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의 두려움과 사회적 고립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

신규 확진자 중 완전접종자가 70% 이상인 상황. 청소년에게 백신접종이 늘어도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 고령층을 중심으로 3차 접종의 시점을 앞당길 수 밖에 없는 상황. 어느 유형의 백신접종자에게서 돌파 감염이 발생하는지, 추가접종이 얼마나 효과를 지속시키는지 연구가 필요.

확진자 증가에 따른 자발적 이동 감소현상이 관측되고 있고 경기 회복 속도도 늦추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치명률이 어느 정도에 따라 국내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11월 29일

위중증자 수가 629명에 달함(29일 현재). 지속적인 위중증자 증가는 유지되겠지만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나 급격한 집단감염 현상이 악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급속한 증가 현상은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수도권외 위중증자 치료를 위한 가용 병상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

현재 60대 이상 위중증자와 사망자수가 급증 할 뿐 다른 연령층의 사망자수는 심각한 상황은 아님. 다만 50대의 위중증자 증가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최근 위중증자 확산을 위드코로나 정책의 실패로 단정해서는 안됨. 비고령층 이동 증가를 코로나 확산의 직접 원인으로 해석하는데는 신중해야 함.

18세 미만 청소년층의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반면 위중증자수는 매우 작은 수준임.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의 두려움과 사회적 고립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

신규 확진자 중 백신 미접종자 비중이 30% 이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3차 접종의 시점을 앞당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어느 유형의 백신접종자에게서 돌파 감염이 발생하는지 연구가 필요.

확진자 증가에 따른 자발적 이동 감소현상이 관측되고 있고 경기 회복 속도도 늦추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치명률이 어느 정도에 따라 국내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11월 24일

위중증자 수가 586명에 달함(24일 현재). 2주전부터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해왔기 때문에 위중증자 증가 추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큼. 수도권 위중증자 치료를 위한 가용 병상이 상당히 부족함. 대기 환자 규모도 큰 상황

위드코로나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재 60대 이상 위중증자와 사망자수가 급증 할 뿐 다른 연령층의 사망자수는 심각한 상황은 아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된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많음. 고령층의 감염 경로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는 고령층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고령층 사망자는 더 커질 수 있음.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강화가 필요

위중증자 증가가 대부분 고령층에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정책의 실패로 단정해서는 안됨. 비고령층 이동 증가를 코로나 확산의 직접 원인으로 해석하는데는 신중해야 함.

18세 미만 청소년층의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반면 위중증자수는 매우 작은 수준임.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의 두려움과 사회적 고립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

신규 확진자 중 백신 미접종자 비중이 30% 이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3차 접종의 시점을 앞당길 수 밖에 없는 상황.

영화관 등의 관객수 증가, 소비심리 회복, 생산자물가상승 등으로 전반적 경기상황은 개선되고 있음

11월 18일

위중증자 수가 522명에 달함(17일 현재). 2주전 확진자 추세를 보면 위중증자 증가 추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70대 이상의 위중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반면, 60세 미만 연령층의 위중증자 수는 안정적이거나 감소하고 있는 상황. 비수도권의 병상은 여유가 있으나 수도권의 위중증자 치료를 위한 가용 병상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환자의 병상 배정 정책을 재검토하고 지역 간 응급환자 이송 협력이 필요.

70대 이상의 사망자수는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연령층의 사망자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음.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된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감염 경로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는 고령층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

위중증자 증가가 대부분 고령층에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정책의 실패로 단정해서는 안됨. 특히 비고령층 이동 증가를 코로나 확산의 직접 원인으로 해석하는데는 신중해야 함.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어 이동량이 코로나19 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동량을 줄이는 경향도 보이고 있음.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의 우려와 달리 확진자가 갑자기 5천명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영화관 등의 관객수 증가, 소비심리 회복, 생산자물가상승 등으로 전반적 경기상황은 개선되고 있음

21년 11월 13일

위중증자 수가 500명에 근접하고 있고 그 속도로 빠른 편임. 특히 70대 이상의 위중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반면, 60세 미만 연령층의 위중증자 수는 안정적이거나 감소하고 있는 상황. 비수도권의 병상은 여유가 있으나 수도권의 위중증자 치료를 위한 가용 병상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

70대 이상의 사망자수는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연령층의 사망자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음.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된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11월에 600명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갑작스러운 위중증자 증가의 원인이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비고령층 이동 증가를 직접 원인으로 해석하는데는 신중해야 함.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어 이동량이 코로나19 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의 우려와 달리 확진자가 갑자기 5천명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영화관 등의 관객수 증가, 소비심리 회복, 생산자물가상승 등으로 전반적 경기상황은 개선되고 있음